

이장석 “박병호 영입 때 연막 좀 피웠지”

〈넥센 히어로즈 대표이사〉

넥센 박병호·서건창 영입 뒷이야기

“일부러 다른 유망주들에 관심 있는 척”
서건창도 테스트 날까 앞당겨 낚아채
둘 다 스타로 우뚝…남다른 혜안 과시

박병호(27)와 서건창(24). 이들이 없는 넥센을 상상할 수 있을까. 사실 불과 2년여 전만 해도, 한 명은 다른 팀 선수였고 다른 한 명은 소속팀조차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것이 달라졌다. LG에서 박병호를 데려온 트레이드는 새로운 대한민국 최고 타자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됐고, 신고선수 서건창의 발굴은 또 다른 성공신화를 아로새겼다. 넥센 이장석 대표이사의 혜안(慧眼)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박병호 데려오기 위해 연막작전 동원

이장석 대표이사는 2일 스포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박병호가 지금만큼 성장하리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아마 스스로도 몰랐을 것”이라며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트레이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LG에서 데려오고 싶은 선수 1순위는 박병호였다”고 말했다. 이미 성남고 시절 박병호가 발휘했던 괴력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던 터였다. 게다가 주전 1루수 이승용은 은퇴가 가까워진 시점이었고, 백업 선수 강병식은 다른 팀 1루수들과 비교했을 때 약해 보였다. 장타력 있는 1루수가 필요했던 넥센에게 박병호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원했던 카드였다. 그러나 박병호를 원하는 팀은 넥센뿐이 아니었다. 박병호는 LG가 유독 트레이드를 꺼리는 선수이기도 했다. 이 대표이사는 “처음부터 박병호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일부러 비슷한 스타일의 다른 유망주들에게도

관심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고 귀띔했다. 결국 망설이던 LG의 마음을 움직였고, 넥센으로 이적한 박병호는 9개 구단 최고의 4번 타자로 성장했다.

●NC 트라이아웃 며칠 앞두고 낚아챈 서건창

서건창의 영입은 더 극적이었다. 신생구단 NC가 2차 트라이아웃을 앞두고 있던 2011년 9월, 팬잡은 신고선수감을 몰색하던 이장석 대표이사는 스카우트팀을 통해 서건창의 이름을 접했다. “광주일고 출신으로 빠르고 팬잡은 선수가 하나 있는데, 다음 주 NC 트라이아웃에 참가한다”는 내용이었다. 곧바로 안테나를 세웠다. “NC 테스트에 참가할 선수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 가면 100% 합격할 것”이라는 정보도 들었다. 당장 넥센의 신고선수 테스트 날짜를 NC 트라이아웃 날짜보다 며칠 앞당겼다. 장소도 광주에서 가까운 강진 2군 캠프로 바꿨다. 이

대표이사는 “광주일고 감독님께 연락해서 꼭 서건창을 우리 트라이아웃에 보내달라고 말씀 드렸다. 그리고 직접 보고 우리가 뽑았다”고 털어놓았다. 그 결과는 모두가 아는 대로다. 서건창은 지난해 주전 2루수로 발돋움했고, 넥센이 배출한 첫 신인왕으로 이름을 세웠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 @goodgoer

▶ 이장석 넥센 대표이사가 팀 핵심 전력으로 성장한 박병호와 서건창의 영입 비화를 털어놓았다. 모두 이 대표의 혜안이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스포츠동아DB



■런다운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면 ‘면제’ 나지완 “군대 갈까 말까” 고민



“아직 나도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듯했다. 9월까지만 해도 “홀가분하게 (군대에) 갔다 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던 기존 입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만은 확실했다.

KIA 4번타자 나지완(28·사진)은 2일 광주 SK전에 앞서 “내년 아시안게임 엔트리에 내가 들 수 있겠느냐”고 물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올해 같은 성적이면 (대표팀에) 뽑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잘 한다는 보장도 없고…”라고 혼잣말을 하기도 했다. 당초 10월 초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할 예정이었던 그는 “아직도 모르겠다”는 말을 되풀이했고, 이미 일찌감치 그에게 “미련 갖지 말고 군에 다녀와라”라고 했던 선동열 감독도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1년 더 입대를 미루고 2014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노려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듯했다.

나지완은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올해 너무 외야수로 많이 뛰었다”고 뉘드리를 늘어놓았다. 골든글러브 외야수 부문에 워낙 출중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많아 자신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올 시즌 전만해도 지명타자로 기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나지완은 팀 사정에 따라 2008년 데뷔 이후 외야수로 가장 많은 경기에 출장했다. 그는 “지명타자 부문이라면 어떻게 해볼 만 하겠는데, 외야수로서 아무리 봐도 어려워 보인다”며 아쉬운 듯 입맛을 다셨다.

광주 1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한화 오성일 팀장 장모상…내일 오전 10시 발인

한화 오성일 E-TPT 팀장이 2일 장모상을 당했다. 빈소는 충남 논산 서논산 장례식장 2층, 발인은 4일 오전 10시. 041-733-4040.

삼성 김상수 내일 수술…한국시리즈 출전 불가능

삼성 유격수 김상수가 4일 수술을 받는다. 삼성 류종일 감독은 2일 “아무래도 김상수가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다. (원손바닥) 골절이라 한국시리즈까지 회복은 어려울 것 같다. 그 대신 조동찬의 회복이 빠르다”고 밝혔다. 원손바닥 골절은 수술을 받으면 최소 3주의 회복기간이 필요해 재활기간까지 고려하면 김상수의 한국시리즈 출장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고양 원더스 내야수 황목치승, LG와 입단 계약

독립구단 고양 원더스는 2일 내야수 황목치승(28)이 LG와 입단 계약을 했다고 발표했다. 올 시즌 원더스 소속으로 프로에 입단한 10번째 선수다. 우투우타의 황목치승은 일본 교토국제고, 아세아대학에서 선수로 뛰다 부상을 입어 야구를 그만뒀지만, 지난해 트라이아웃을 통해 원더스에 입단했다.

이대호, 니혼햄펜 3연속경기안타…타율 0.307

오릭스 이대호(31)가 2일 삿포로돔에서 열린 니혼햄과의 원정경기에서 4번 1루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1안타 1득점 3삼진을 기록했다. 3연속경기안타. 시즌 타율은 0.307로 약간 떨어졌다. 1회 우익수 플라이, 3회 삼진으로 물러난 이대호는 5회 좌전 안타를 뽑았으나 6회와 8회 다시 삼진으로 돌아섰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 @mkh2357



LG 정성훈(오른쪽)이 2일 잠실 한화전 1회말 2사 2루서 3루 도루를 감행해 세이프되고 있다.

잠실 1 뉴시스

감독이 끌고 주장이 밀고…LG의 가을이야기

김기태 감독, 선수들과 기념촬영 등 ‘분위기 메이커’ 주장 이병규도 ‘구단주 빙의’ 후배들에게 격려 약속

현장 리포트

LG는 11년 만에 가을야구 무대를 밟는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1위부터 4위까지 순위가 확정되지 않았다. 막판스피트를 해야 할 시점에 LG는 흔들리고 있다. 순위싸움에서 중요했던 지난달 30일 잠실 두산전과 1일 사직 롯데전에서 잇달아 패한 게 뼈아팠다. 자칫 잘못하면 팀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는 상황. 이를 잘 아는 LG 김기태 감독은 분위기메이커를 자청했다.

LG 선수단은 1일 사직 경기를 마친 뒤 곧바로 이동하지 않고 2일 낮 12시30분 비행기로 상경했다. 김 감독은 잠실구장에 도착하자

마자 선수들에게 “기념촬영을 하자”며 깜짝 제안을 했다. 김 감독은 이날 잠실 한화전을 앞두고 “캠프도 하고 시즌도 치르는데, 선수들과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더라”며 “뒀을 돌아본 적 없이 일만 한 것 같아 사복을 입은 김에 한 번 찍자고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 덕분에 선수들은 전날 끝내기 패배로 무거웠던 마음을 훌훌 털고 즐겁게 촬영에 임했다는 후문이다.

이뿐 아니다. 주장 이병규도 팀 분위기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그는 경기 전 내년 신인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나타나자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그 앞으로 걸어가 일일이 악수를 청했다. 이후 선수들에게 “열심히 훈련하는

선배들에게 인사하라”며 큰 소리로 ‘안녕하십니까’를 외치게 했다. 새내기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그라운드에 울려퍼지자 훈련하던 LG 선수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이를 지켜보던 박용택이 “구단주 같다”며 구박했지만, 이병규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퇴장하는 신인선수들을 붙잡고 ‘수고하셨습니다’를 외치게 했다. LG 유지현 수비코치는 “감독님도, 주장 (이)병규도 즐기면서 야구를 하자고 선수단을 독려한다”며 “선수들이 지금까지 충분히 잘 해줬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경기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잠실 1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LG 주장 이병규(왼쪽)와 김기태 감독이 밝은 표정으로 손가락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김 감독은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선수들을 위해 분위기 메이커까지 자청하고 나섰다.

뉴시스

돌아온 장성우 “경찰청서 자신감 얻어왔다”

제대 후 이를 쉬고 원 소속팀 롯데 합류

장성우(23·사진)가 롯데로 돌아왔다. 2일 삼성전을 앞둔 사직구장. 장성우는 롯데 유니폼을 입고, 동료들과 타격훈련을 했다. 원래부터 롯데 선수인 듯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경찰청에서 제대한 장성우는 이틀만 쉬고 바로 1일부터 롯데에 합류했다. 롯데는 함께 제대한 투수 장원준에게는 휴식을 줬으나, 장성우는 바로 불렀다. 어차피 1군 엔트리에 등록시키지 않지만 컨디션 유지 차

원에서 합류를 지시한 것이다. 장성우는 훈련만 마치면 바로 귀가한다. 코칭스태프는 장성우에게 “포수훈련은 일본 가고시마 마무리훈련부터 한다. 지금은 타격감만 익히라”고 당부했다.

장성우는 “입대하기 전과 선수들이 많이 바뀌었다. 빨리 얼굴부터 익혀둬야겠다”고 말했다. 원래 수비형 포수의 이미지가 강했던 장성우는 경찰청에서 공격력을 향상시켰다. 올해

2군 기록이 말해주는데, 88경기에서 타율 0.382(309타수 118안타) 13홈런 73타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정작 장성우가 홈런, 타점보다 가치를 두는 기록은 따로 있다. 먼저 삼진 숫자의 감소다. 올해 2군에서 삼진이 26개밖에 안 되는데, 이는 선구안 향상을 증명한다. 또 하나는 자신감이다. “롯데에서 자신감 없이 야구를 했던 것 같은데, 경찰청에서 유승안 감독님이 4번 타자로 계속 써주니 야구를 대하는 책임감이 생겼다”고 털어놓았다. 프리에이전트(F

A) 강민호의 잔류 여부에 대해서도 “강민호 선배가 떠난다고 내가 주전을 보장받는 것도 아니고, 남는다고 후보선수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부담감보다 기대감을 갖고 2014시즌을 기다리는 장성우다. 사직 1 김영준 기자 galzyb@donga.com

트위터 @mat3n21

■엔트리노트

〈2일〉

- 등록=김희결(삼성) 정재훈(두산) 송준은 정태승(이상 롯데) 최성훈(LG)
- 말소=벤덴헬크(삼성) 유창준(두산) 김사을 옥스프링(이상 롯데) 최정철(LG) 전현태(한화)

